

영광교육지원청 “우분트 리더십을 키워요”

영광연합학생회·청소년정책자문단 리더십 캠프 학교폭력 예방·교통·물놀이 안전 위한 캠페인

영광교육지원청은 20일 ‘영광연합 학생회 및 청소년정책자문단 리더십 캠프’를 실시하였다. 영광교육지원청은 3월부터 초·중·고 각 학교 대표들로 구성된 영광연합학생회를 조직하여 매월 1회 연합회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자신감up, 발표력up을 통한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영광교육을 위한 정책제안의 자리로 구성되어 리더가 되기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자신의 꿈 리스트 작성 및 비전 발표, 영광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영광경찰서와 연합하여 실시한 청소년정책자문단 회의에서는 학생회 주관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방법과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한 교통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진·학생은

“그동안 학생회 대표로서 말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자신감이 없고 부족함을 느꼈었다. 그런데 오늘 보이스트레이닝을 통해 자신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좋았다. 또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의미 있었다.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는 1학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남학생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였었는데 2학기에 여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영광교육지원청 허호교육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내가 있어 내가 행복하다’는 우분트 리더십을 익



혀서 학교에 돌아가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피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학생회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 할 줄 아는 멋진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전남여성·서영대 업무협약 체결

‘제빵·네일미용’ 과정 운영

전남여성상과 서영대가 21일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과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영대에서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학점인정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 제반사항 상호 협력 ▲뷰티 미용, 제과·제빵 등의 전문교과목 운영을 위한 인프라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8월9~13일 총 34시간 동안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학교 밖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학생들은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본적인 제빵 실습과정과 네일의 이론, 관리, 네일아트 기법 등의 네일 실습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서영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추후 서영대 입학 후 이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서선옥기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운영

연극, 원격연수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상반기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남 17개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프로그램 계획과 공동 추진한 결과

총 20회 32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지난 7월16일에도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3개 읍·면(지도·인자·중도)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는데, 학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가

졌다. ‘인형극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가족여행’이라는 주제로 가족 간 인형극 관람과 직접 손인형을 만들어 평소 말하지 못한 마음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고, 자녀들은 비즈로 팔찌를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원격 연수를 같이 실시하였고, 원격연수를 위해 사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사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특히 자녀의 원격수업 지도를 위해 지역청 컴퓨터실에서 직접 작동 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학습교재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였다.

완도=이민혁기자

목포교육지원청, 학부모·교직원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다가간다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다가간다

학부모-교직원, 다모임 운영에 ‘공감대’ 형성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1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모임을 운영했다.

학교급별로 이루어진 행사는 학교 참여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직원과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또 학부모가 직접 강사가 되어 연수하고 모듬을 이끌어가는 참여에 바탕을 둔 귀중한 시간이었다.

다모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1부 순서로 학부모 학교 참여의 확대 배경과 방법 등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 참여 문화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는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어 분임별로 학부모회 구성 현황

과 학교 참여 활동 사항을 살펴보고 참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찾는 열띤 토론과 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부모회 자치지원단 8명이 분임장이 되어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탐색하고 집단지성을 이루는 장이 되었다.

이번 다모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그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대해 학교 선생님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한 선생님은 “학부모와 이렇게 긴 시간 학교 교육과 관련한 주제와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니, 학교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과정으로 학생 성장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목포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직원과 학부모 더 나아가 학생까지 함께하는 다모임을 운영하여 3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학부모회 자치지원단을 지속 운영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광주 건국초, 1학기 ‘학부모 자치 신문’ 발행

학부모회의 역할·각종 위원회 활동 소개 등 내용 소개

광주 북구 건국초 학부모회가 2021학년도 1학기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관련 내용을 담아 ‘학부모 자치 신문’을 발행했다.

21일 건국초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신문 초안 작성 후 학부모 대의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며 1학기 학부모회 활

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되돌아보기에서 나온 의견들 중 공유했던 내용들을 신문에 추가해 최종 완성했다.

신문에는 ▲학부모회의 역할 ▲각종 위원회 활동 소개 ▲학부모회실 안 내 ▲학부모 동아리 ▲재능기부로 진

행했던 5·18추모교육 ▲학부모회 봉사동아리 주관 학교 안전 캠페인 등 1학기 동안 실시한 학부모교육 관련 정보에 대해 소개했다.

또 ▲2학기 학부모회 활동 일정 ▲마을교육공동체 ▲아버지 교실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기동취재본부

